

정합적 구성주의 : 인지의 보다 나은 이론화를 위한 통합적 책략

김 정 호
(덕성여대 교수)

《요약》

본 논문에서는 정합적 구성주의를 인지의 보다 나은 이론화를 위한 통합적 책략으로 제안하였다. 정합적 구성주의에서는 우리가 아는 세계를 우리 자신의 구성물들의 집합으로 보며, 구성물들 간의 실재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본다. 또한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론이란 우리가 구성하는 또 다른 유형의 구성물이라고 본다. 정합적 구성주의의 이러한 관점은 이론들을 형성하는데 존재하는 제약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에 따라 정합성있게 이론을 만드는 것이다. 본 논문은 또한 정합적 구성주의의 입장에서 인지의 이론화에 대한 몇 가지 기존의 접근들에 대한 비판적 개관을 포함하고 있다.

I. 서론

인지¹⁾를 설명하려는 목적을 갖는 다양한 이론들(혹은 모형들)이 있다. 비록 이 이론들이 유사성을 갖지만, 그들의 관점은 때로 너무 상치적이어서 종종 이론적 논쟁에 빠질 때가 있다. 이러한 논쟁은 유익하기도 하지만 또한 해롭기도 하다. 이론적 논쟁은 각 이론의 단점을 명백하게 하고 수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론적 논쟁은 각 이론적 입장의 극단적 배타성으로 해서 보다 발전된 이론을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장애를 제거하고 상치적인 이론들을 상보적으로 통합하는 보다 나은 이론을 발전시키는 책략으로 정합적 혹은 일관된 구성주의

1) 본 논문에서 인지라는 용어는 심리현상 일반을 의미한다.

(Coherent or Consistent Constructivism)를 제안하고자 한다.

심리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내적인 변인들을 강조하는 이론들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변인들을 강조하는 이론들이다. 비록 그들이 서로 상보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종종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행동주의는 인간과 동물의 행동을 단지 외부에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자극과 반응으로만 설명하려고 했다. J. Gibson을 따르는 지각이론 역시 실재론(Realism)의 입장에서 외부적 조건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많은 인지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지각이 내적인 요인들의 작용에 따른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J. Fodor는 외부환경을 배제하고 내적인 상태만으로 심리현상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적인 변인들을 강조하는 이론적 입장에는 모든 설명들이 생리적 수준의 설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환원주의(Reductionism)도 있다.

이론적 입장간의 이러한 차이와 이들간의 조화의 부족은 부정합적인 혹은 비일관된 구성주의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차이와 조화의 부족은 내적 조건들과 외적 조건들이 모두 우리의(혹은 우리 마음의) 구성물이라는 이론적 입장을 인지의 이론화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내부와 외부의 조건들을 우리 자신의 구성물로 보는 정합적(혹은 일관된) 구성주의의 관점에서는, 내부와 외부가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근본적이거나 더 실재적이지도 않다.

본 논문에서는 정합적 구성주의를 보다 상세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정합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심리학적 이론들을 형성하는 몇 가지 접근들(혹은 책략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접근들은 행동주의, Gibson 실재론(Gibsonian Realism), Fodor의 방법론적 유아론(唯我論), 그리고 Churchland의 환원주의이다. 이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통합하여 인지의 보다 발전적인 이론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정합적 구성주의는 몇 가지 장점을 갖는다. 정합적 구성주의는 여러 가지 이론적 관점들을 상치적으로 보기 보다는 특정 목적을 위한 효율성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며,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을 상보적으로 통합하여 보다 정합적이고 일관된 이론을 훨씬 쉽게 만들 수 있게 한다.

II. 정합적 구성주의

1. 정합적 구성주의의 개관

정합적 구성주의는 구성주의를 자신의 신조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고 더 넓은 영역의 현상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구성주의의 관점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만 세계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아는 세계는 세계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혹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 구성된 세계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아는 세계는 우리와 독립적일 수 없다.

정합적 구성주의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세계는 우리의 구성물(혹은 표현물)의 집합이며,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우리가 아는) 장미는 우리의 눈, 코, 피부 등을 통해서 그것의 독특한 모양, 향기, 감촉 등으로 구성된다.(비록 통상적으로 우리가 장미 자체를 “본다”, “냄새 맡는다”, 또는 “느낀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장미의 모양, 향기, 감촉 등은 단지 우리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구성물들이다.) 또한 장미는 자신을 형성하는 기관들의 집합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그 기관들은 현미경의 도움으로 그들을 형성하는 작은 세포들의 집합으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그 세포들은 작은 입자들의 집합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등등. 한 인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인간은 그의 성격, 신념체계, 혹은 기질 등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구성방식에 따라 다양한 세계들을 구성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위와 유사한 관점을 Marr(1982)의 정보처리과제에 대한 세가지 수준(계산적 이론, 알고리즘, 및 구현(implementation))과 Pylyshyn(1985)의 인지 이해의 세가지 수준(표상적 혹은 의미적 수준, 상징처리수준, 및 물리적 혹은 신경-물리적 수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정합적 구성주의에서는 이러한 수준들 자체가 우리의 구성물로 간주된다. 정합적 구성주의는 기능적 및 의미적 수준들(Pylyshyn의 상징처리수준 및 의미적 수준; Marr의 알고리즘 및 계산적 이론 수준)이 실재적이나(realistic) 혹은 도구적이냐는(instrumental) 논쟁에 관계하지 않는다.(이러한 실재적 대 도구적 해석의 논쟁은 Stillings, Feistein, Garfield, Rissland, Rosenbaum, Weisler, & Baker-Ward(1987: 328-332)를 참조; 이와 유사한 논의를 Howard(1983: 200-204)에서 이론예시(theory

demonstration) 대 이론발전(theory development)의 논의와 Pylyshyn(1985: Chapter 4)에서 강한(strong) 대 약한 동치(weak equivalence)의 논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구성물이라면, 어떤 것이 다른 것 보다 더 실재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세계가 우리의 구성물들의 집합이라면, 어떤 것은 실재적이고 다른 것은 도구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²⁾

2. 정합적 구성주의의 제안 이유

구성주의의 역사적 뿌리는 깊다. 동양의 경우 구성주의의 역사는 불교 혹은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양에서 구성주의는 Berkeley로 올라간다. 특히 Kant는 서양 철학에서 구성주의를 체계화시켰다. 최근에 구성주의는 Nelson Goodman(1976, 1978, & 1984)에서 잘 발견된다. 또한 요즈음 대부분의 인지심리학자(혹은 넓게는 인지과학자)는, 우리의 경험이 외부세계의 특징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정합적 구성주의의 이름으로 구성주의를 제안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본 논문은 Goodman의 관점 대부분에 동의하지만, 구성주의 때문이라고 종종 귀인되는 급진적(파괴적이라는 의미에서) 상대주의(Relativism)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인지심리학자(혹은 넓게는 인지과학자)에게 비구성주의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소들은 인지과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본 논문에서 정합적 구성주의를 제안하는 두 가지 이유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인지과학자들의 비구성주의적 태도를 다루고, 다음에 급진적 상대주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많은 인지과학자들이 구성주의를 받아들이며 세계가 인간에 의해 구성되는 기제를 연구한다; 그들은 세계를 구성하는 우리 마음의 구조와 과정의 모형들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서 실재론을 믿으려고 하는 명백한 혹은 암묵

2) 정합적 구성주의의 이러한 관점은 세계를 우리 마음의 구성물로 보는 종교이면서 철학인 불교에서 “불이(不二)”가 뜻하는 바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적인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지과학자를 포함하여 우리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우리의 경험이 외부세계를 정확하게 표상한다고 믿으며 우리가 지각하는 것을 외부세계의 사물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우리는 또한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지각적인 경험들(예, 유기체의 행동이나 신경원의 모양)이 우리의 인지적 혹은 개념적 경험들(예, 유기체의 태도나 지식구조)보다 더 근본적 혹은 실재적이라고 가정한다. 인지과학자들의 이러한 비일관적인 태도는 대부분의 인지과학자들의 비정합적 혹은 비일관적인 구성주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마음(혹은 마음의 구조와 과정)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는 세계가 세계 자체라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정합적인 구성주의는 또한 다음의 급진적 상대주의의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위의 단락에서 기술하였듯이, 세계가 우리의 구성물들의 집합이고 구성물들 간의 실재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급진적 상대주의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여기서 급진적 상대주의의 문제란 우리가 어떻게 혹은 어떤 근거에서 참을 거짓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Goodman은 이 문제를 버전들(versions)과 세계들 간의 구별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우리는 명백히 참을, 한 버전과 외부세계의 무엇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 버전 자체의 특성들과 다른 버전들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세계가 상실되고 세계와의 상응이 상실될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정합성이다. 그러나 그 해답은 정합성 하나에만 있지 않다; 왜냐하면 거짓된 혹은 틀린 버전이 옳은 버전과 함께 유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합적인 버전들 속에서 옳은 것을 변별하는 어떠한 자명한 진리, 절대적 원리, 또는 무제한적인 보증도 갖고 있지 않다; 이 선택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Goodman, 1984: 37)

Goodman은 고려해야 할 다른 것들의 하나로 세계들의 환원불가능한 복수성(irreducible plurality of worlds)을 가정한다. 그는 “갈등적인 진리들”(conflicting truths)을 수용하고, 이것들을 “다른 세계들에서 참인 버전들”로 취급함으로써 이것들을 조정한다(Goodman, 1984: 30-31). 그러나, Goodman은 버전들과 세계들 간의 구별에 있어서 명료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옳은 버전들과 틀린 버전들 간의 구별에 있

어서도 명료하지 못하다.

우리는 정합성이외에(Goodman이 주장하듯이) 고려해야 할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정합적인 버전들 속에서 옳은 버전을 구별해 내는 데 필요한 “절대적 원리”의 결핍은 단점이 아니다. 정합적 구성주의에서는 버전들과 세계들 간의 구분이나 옳음과 그름 간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goals)에 따른 정합성의 정도 차이만이 있다. 따라서 정합적 구성주의는 참의 문제를 우리의 목적에 따른 정합성의 개념으로 해결한다. 다시 말해서 정합적 구성주의는 참의 개념을 우리의 목적에 따른 정합성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다. 사실 참의 개념은 구성주의와는 합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에 따른 정합성의 측정이다.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우리의 목적에 따른 정합성에 대하여 좀더 설명하고자 한다.

3. 정합적 구성주의에서의 이론화: 목적의 중요성

정합적 구성주의에서 이론은 단지 우리가 만드는 구성물의 한 종류이다. 장미의 지각과 개념이 하나의 대상이나 사건을 표현하는 구성물이라면, 이론은 대상들과 사건들의 집합을 표현하는 구성물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론들을 구성할 것인가? 정합적 구성주의에서는 구성물들 간의 실재성에 차이가 없다. 모든 구성물들은 그들이 우리가 만든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정합적 구성주의의 이러한 관점은 이론을 형성하는데 존재하는 기존의 제약들(예, 이론은 실재와 상응해야만 한다는 제약³⁾)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과학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성물들이 상호간에 정합성 있게 관계되도록 이론들 혹은 모형들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합적 구성주의에서 정합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정합성은 각 구성물이 다른 구성물들과 모순됨이 없이(혹은 일관되게) 관계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이론들 가운데 그 정합성에 따라 보다 정합성 있는 이론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이론이 인간의 인지현상을 모의(혹은 설명)하는데, 그중 하나가 심리실험의 자료(즉, 심리실험을 통해 얻어진 구성물들)와 보다 합치 혹

3) 정합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제약은 이론들이 지각물들(percepts)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들이나 지각물들이나 모두 우리의 구성물들이다.

은 일치된다면, 우리는 그 이론을 인간인지의 보다 정합성 있는 이론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정합성은 실무율(all-or-none)적인 개념이 아니라 연속적인 개념이다.

우리는 또한 정합성을 상대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합성은 우리의 목적에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목적은 다양한 조망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 김정호(1995)는 목적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적이 있다: 경제적 목적(절약성(parsimony)을 추구함); 규범적 목적(사회-문화적 규범을 추구함); 심미적 목적(일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려우나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물론 더 많은 목적을 추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합성이 우리가 이론을 형성함에 있어서 추구하는 특정한 목적에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지의 이론화의 경우에는 경제적 목적, 즉 절약성을 추구하는 목적이 목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⁴⁾

정합성을 경제적인 목적들에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정 영역에서 다른 이론들보다 더 정합성 있는 이론이 다른 영역 혹은 보다 큰 영역에서는 덜 정합성인 이론일 수도 있다. 물론 우리는 보다 넓은 영역에서 정합성있는 이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넓은 영역에서 정합적인 이론을 추구할 때, 우리는 간결성(simplicity)과 같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이론화에는 포괄성-간결성의 교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특정한 관심이나 목적에 따라 간결성보다 포괄성을 선호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보다 작은 영역에서만 정합성이 있되 보다 간결한 이론을 선호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보다 큰 영역에서 정합성이 있되 덜 간결한 이론을 선호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따라 이론화에 있어서 “최적의”(optimal) 정합성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물들간의 일치성에 있어서 다른 이론들보다 더 정합적인 이론이 특정 목적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을 특정한 정확성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뉴턴 물리학이 아인슈타인 물리학보다 더 효율적(즉 경제적)이다.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뉴턴 물리학에서 유도

4) 비록 본 논문이 인지의 이론화에 있어서의 정합성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이와 같은 고려는 과학의 이론화 일반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되는 공식이,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에 따라 시간, 길이, 및 무게를 교정하는 아인슈타인 물리학에서 유도되는 공식보다 더 간결하다. 아울러 전자에서 발생하는 오차(혹은 비정합성의 양)는 일상생활의 수준에서는 거의 무시할 만 하다.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가 한 도시의 도로지도를 만들 때, 지구가 둥글다기 보다는 평평하다고 가정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 요컨대, 정합적 구성주의에서 좋은 이론이란, 주어진 목적과 관련해서 구성물들에 효율적으로 정합성을 부여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론들의 정합성을, 설명에 있어서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목적을 충족시킴에 있어서의 효율성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요약해 보면, 어떠한 이론도 절대적으로 정합성이 있거나 절대적으로 정합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론의 정합성을 평가할 때, 우리는 이론의 정합성이 우리의 목적과 관련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즉 이론의 효율성은 그 이론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능하는가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⁵⁾

III. 인지의 이론화에 대한 몇 가지 기존의 접근에 대한 비판적 논의

1. 행동주의와 Gibson 접근의 맹목성

심리학에 대한 행동주의적 접근에서는 심리학의 주제를 관찰가능하고 측정가능한 유기체의 행동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유기체의 내적 구조와 과정을 심리학 주제의 정당한 영역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다. 유기체의 내적 구조와 과정을 배제하는 근거는 단순하다: 내적 구조와 과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없으며, 관찰가능하지도 측정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행동주의는 환경(즉, 자극)과 행동(즉, 반응) 간의 관계만을 기술함으로써 유기체의 행동을 설명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해서 행동주의는 자극-반응(S-R) 심리학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요컨대 행동주의는 심리학을 물리학처럼 객관적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5) 참고적으로 목적을 중시하며 인지의 이론화에 접근하는 시도의 하나로 김정호 (1991, 1995; Kim, 1986a, 1986b, 1992)를 들 수 있다.

심리학에 대한 Gibson 접근은, 지각의 영역에 있어서 심리학에 대한 행동주의적 접근의 또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Gibson 접근은 지각현상을 단지 지각하는 유기체의 외부 조건들(즉, 환경적 제약들(constraints))로만 설명한다. Gibson주의자는 지각이 유기체의 추론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부정한다. Gibson은 지각이 직접적(direct)이며 유기체는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추출(pick up)하기만 한다고 주장한다.

심리학에 대한 행동주의적 접근과 Gibson 접근은 많은 장점을 갖는다. 이들은 심리학이 보다 객관적인 과학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심리학의 객관적 연구를 위하여 외부 조건들만을 배타적으로 연구하는 그들의 책략은 외부 조건들 역시 우리에게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는 외부 세계(혹은 물리적 세계)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려진다. Köhler가 말했듯이; “상처가 탄환을 쏜 총이 아니듯이, 우리가 보고 느끼는 우리 앞에 놓인 사물도 상응하는 물리적 대상과 동일할 수 없다”(1947: 17). 우리가 아는 물리적 대상은 물리적 대상 자체가 아니고, 물리적 대상 자체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성한 것이다.

요컨대 심리학에 대한 행동주의적 및 Gibson 접근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찰하는(혹은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구성물이며, 중요한 것은 관련된 구성물들을 정합성있게 함께 연결하는 이론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객관성은 더이상 좋은 과학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정합적 구성주의에 따르면, 이론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어떠한 자료도 우리의 구성물로서, 주관적인 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의 구성물이라면, 주관과 객관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따라 특정 구성물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주의의 정합성의 관점을 통해, 우리는 주관-객관의 이분법이 우리의 목적에 따른 정합성의 정도 혹은 양으로 대체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⁶⁾

2. Fodor의 방법론적 유아론의 맹목성

6) 이러한 입장은 불교의 “불이”(不二)사상과 유사하다.

행동주의적 및 Gibson 접근법과는 반대로, Fodor의 방법론적 유아론(Fodor, 1980)은 외부 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내부 변인에만 관심을 갖는다. Fodor가 인간 행동을 믿음, 욕구, 공포 등의 정신상태들로 설명하는 통속 심리학(folk psychology)을 주장함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없다. 그가 주장하듯이, 인간 행동을 내적 상태들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정신상태들을 넓게(혹은 투명하게) 해석하면 안되고 좁게(혹은 불투명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 역시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외디프스가 조카스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이 말은 그가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넓은 내용 논증(Putnam, 1975)은 의미의 문제에 지나치게 고착되어, 우리가 유기체의 정신상태들을 고려할 때 그 유기체의 세계에 대한 이해(혹은 구성)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Andy Clark(1989: 43)가 언급했듯이, “[쌍둥이 지구의 경우] 는 의미가 진리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사전에 수용할 때만 하나의 논증이 성립된다.” 본 논문의 입장에서 볼 때, 철학자들은 진리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Fodor는 좁은 내용이 유기체와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두 유기체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좁은) 내용들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그 내용들은 그 유기체들과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구성물이다. 물론 인간 행동을 내적 상태들만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적 상태가 어떻게 표상되는가, 즉 구성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세계를 참조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가 정신 상태들을 좁은 내용들로 간주할 때에도, 우리는 내부 세계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도 고려해야 한다.(물론 이때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는 모두 우리의 구성물로서의 세계를 말한다.)

3. 제거적(혹은 급진적) 환원주의의 맹목성

환원주의는 현상의 수준들을 전제하고, 상위수준의 현상을 하위수준의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과학의 적법한 책략이라고 주장한다. 심리학에서, 환원주의의 책략을 수용한다면, 인간 행동은 생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환원주의 그 자체는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책략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한 수준에서 비규칙적인 현상이 더 낮은 수준

에서는 규칙적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환원주의자들, 특히 제거적 환원주의자들(P. M. Churchland, 1984; P. S. Churchland, 1986)이 환원주의가 과학의 접근으로 유일하게 적법하며 상위수준의 설명적 개념들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들은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우리는 여러 유형 및 수준의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 생리적 세계는 우리가 구성하는 단지 또다른 세계일 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구성하는 다른 세계들보다 더 근본적이지는 않다. 우리는 우리가 구성하는 각 세계에 대한 이론을 만들 수도 있으며, 간세계(inter-worlds)를 위한 이론을 만들 수도 있다. 각 이론은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에 상대적으로 정합성에 따라 평가된다. 적어도 우리는 어떤 수준에서의 설명이 다른 수준에서의 설명보다 더 근본적이거나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 건전한 검증법을 발견할 수 없다.

IV. 결 어

본 논문에서는 인지의 보다 나은 이론화를 위한 책략으로 정합적 구성주의를 제안하였다. 정합적 구성주의는 우리가 아는 세계를 우리의 마음과 세계 자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구성물의 집합으로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세계 자체를 결코 알지 못하므로,(우리의 구성물과 실재 간의 상응으로 결정된다고 주장되는) 진리의 개념은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구성물을 실재(혹은 세계 자체)와 분리시킬 수 없다.⁷⁾

정합적 구성주의에서 이론의 형성에 중요한 것은 이론이 우리의 목적에 따라 정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 형성에 있어서 이와 같은 책략을 취하면,(적어도) 표면적으로 상처되어 보이는 이론들에 덜 방해받고, 이론을 선택하거나 통합하는데 보다 실용적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각 이론들을 절대적 관점이 아니라 특정 목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상처되어 보이는 이론들을 절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

7) 정합적 구성주의의 이러한 관점은 불교의 불이(不二)사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간의 관계를 깊게 다루는 것은 본 논문의 논의를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된다.

에 정합적 구성주의는 이론을 유기체처럼 본다: 즉, 이론은 진화한다. 절대적으로 참된 이론은 없고 다양한 정도의 정합성을 갖는 이론들이 있을 뿐이며, 이러한 이론들은 우리가 세계를 구성하는 방법을 발전시킴에 따라 진화한다.

정합적 구성주의는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이론들을 환영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특정 현상에 대한 이론들이 상치할수록 우리가 그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진을 통해서 특정 대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의 사진들이 유사하거나 심지어 동일한 조망에서보다 서로 다른 조망에서 찍힌 경우가 더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인지의 이론화에 있어서 몇 가지 기존의 접근들(혹은 책략들)에 대한 본 논문에서의 비판적 논의가, 이러한 접근들이 그릇되었고 버려져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강조된 것은 이러한 접근들이 극단적으로 되어서 서로를 배제해서는 안되며, 한 접근의 수용이 다른 접근들의 기각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각 접근은 우리의 특정 목표에 따라 평가되고 사용될 수 있다. 정합적 구성주의의 이러한 실용적 및 상보적 관점으로 우리는 다양한 이론들을 더 잘 통합할 수 있고 보다 생산적인 이론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호(1991). 효율적인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을 위한 인지심리학적 고찰: 안-밖 합치도 접근. **한국 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3, 117-130.
- 김정호(1995). 컴퓨터 용어의 효율적인 한글화를 위한 인지심리학적 고찰: 안-밖 합치도 원리 모형 접근. **사회과학연구**(덕성여자대학교), 1, 1-10.
- Churchland, P. M.(1984). *Matter and consciousness: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mind*. Cambridge, Mass.: MIT Press.
- Churchland, P. S.(1986). *Neurophilosophy: Toward a unified science of mind and brain*. Cambridge, Mass.: MIT Press.
- Clark, A.(1989). *Microcognition: Philosophy, cognitive science, and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Cambridge, Mass.: MIT Press.
- Fodor, J. A.(1980). Methodological solipsism considered as a research strategy in

- cognitive psychology.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 63-73.
- Goodman, N.(1976). *Languages of art: An approach to a theory of symbols*. Indianapolis and Cambridge: Hackett.
- Goodman, N.(1978). *Ways of worldmaking*. Hassocks, Sussex: Harvester Press.
- Goodman, N.(1984). *Of mind and other matter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Howard, D. V.(1983). *Cognitive psycholog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Kim, J.-H.(1986a). Some difficulties of encoding specificity principle. *한국심리학회지*, 5, 154-166.
- Kim, J.-H.(1986b). Compatibility principle model: A general framework for memory research. *학생지도연구*, 6. 서울: 덕성여자대학 학생생활지도연구소, 69-103.
- Kim, J.-H.(1992). Inner-outer compatibility principle model: Functionalism and computationalism.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4, 165-177.
- Köhler, W.(1947). *Gestalt psychology*. New York. Liveright Publishing Co.
- Marr, D.(1982). *Vision*. New York: W.H. Freeman and Co.
- Putnam, H.(1975). *Mind,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ylyshyn, Z. W.(1985). *Computation and cognition: Toward a foundation for cognitive science*. Cambridge, Mass.: MIT Press.
- Stillings, N. A., Feistein, M. H., Garfield, J. L., Rissland, E. L., Rosenbaum, D. A., Weisler, S. E., & Baker-Ward, L.(1987). *Cognitive science*. Cambridge, Mass.: MIT Press.